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2.1~2017.2.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짧지만큰가르침(성철스님의)	원택엮음	장경각
2	당신은무엇을먹고사십니까-선재스님의삶에서배우는사찰음식이야기	선재 스님	불광출판사
3	성철평전	김택근	모과나무
4	알기쉬운쑥쑥능엄경	현담스님	도서출판선
5	붓다컬러링(손끝으로 만드는 마음속평화)	매튜스미스	(주)조계종출판사
6	사찰불화명작강의	강소연	불광출판사
7	능엄경 대의풀이	남회근/송찬문	마하연
8	수구즉득다라니	석법성	운주사
9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10	혜민스님의따뜻한응원(365일마음달력)	혜민	수오서재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禪密, 선을 척추 삼아 살을 입힌 것



선밀, 선을 두루 살피다

소계 전산 지음
운주사 펴냄 | 2만원

불립문자, 언어도단이 '선'의 경지일진대, 선을 문자로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역할이 필요한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달의 본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선현〉과 〈선밀〉, 이 두 책은 상호보완하면서 '달'의 진체를 보여주고, 달을 제대로 바라보는 방향과 방법을 알려주기도 할 것이다.

'선'은 오랫동안 동아시아 정신문명의 한 축을 담당했으며, 특히나 현대 사회에 그 가치가 더욱 유효하다고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여러 측면서 도전에 직면했다. 명료하게 자신의 본체를 드러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리어 언어문자로써 선을 그려내는 순간 본질과 천리만리 어긋난다고 말한다. 이렇게 선은 하나의 사상체계이지만, 본질적으로 종교적 수행체계이기 때문에 일반 철학 등과 같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현대인의 특성상,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선을 이해시키고 전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현대인의 언어, 현대인의 사고방식, 현대인의 지식으로 접근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선은 해방이요 해탈이다. 무엇의 해방이요 해탈인가? 몸과 현상과 현실과 조건에 묶인 마음의 해방이요 해탈이다. 그래서 오직 마음을 문제 삼는다. 마음은 자기에게 묶이고 집단에

"禪은 육신의 해방과 해탈이요
마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
결국 禪은 생각 의식에 대한 탐구"

묶인다. 따라서 자기로부터의 해탈, 집단으로부터의 해방이 요점이다. 선의 지난한 역사는 이러함의 끝없는 과정이다. 마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이라는 것이다. 결국 생각, 의식에 대한 탐구인 셈이다."

〈선현〉과 〈선밀〉은 이렇게 선에 대한 저자의 천착이자 탐구 여정의 기록이다. 〈선현(禪現)〉은 선의 요지만을 군더더기 없이 일관되게 드러내어 밝힌 것이고, 〈선밀(禪密)〉은 선을 척추로 삼아 살을 입힌 것이다. 즉 〈선현〉은 본지풍광의 자리를 간결히 설명한 반면, 〈선밀〉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즉 정치, 경제, 역사, 문화, 과학 등의 지식을 동원해 설명한다. 따라서 〈선밀〉에는 선의 골수가 육체 속의 척추같이 들어있어 많이 숨겨지고 가려졌다. 그러나 〈선밀〉을 정독하면 선의 골수를 더 단단히 잡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사실 〈선현〉의 내용은 대부분 〈선밀〉서 다시 언급된다. 이 두 책이 뼈와 살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현〉을 통해 선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으면 굳이 〈선밀〉을 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뼈대와 살이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육체를 이룰 수 있듯이, 〈선밀〉을 통해 〈선현〉을 보다 넓고 깊게 이해하고, 〈선현〉을 통해 〈선밀〉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저자의 말처럼 "두 책은 비록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읽어가다 보면 쇠가 불과 물에서 연단되듯이 자신의 정신이 연단됨을 느낄 수 있고, 마침내는 지혜의 명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좌선의 고요 속에서 자신의 내면서 일어나는 일을 살펴보는 것이 시작이라고 말한다. 감각의 고도화와 마음의 집중을 통해 그동안의 잘못된 견해를 뒤집고 획기적인 인식에 도달해서 존재의 진실상을 바라보라고 한다. 이렇게 수행을 통해 실제롭게 정신을 다스리는 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혁명이요 대진화이며 비의(秘意)중의 비의라고 한다. 이처럼 수행은 정신과 육체에 대한 탐구이며 몸과 마음에 대한 실천적 궁구이다. 어리석은 자는 세계를 바꾸려고 하고, 지혜로운 이는 자신을 바꾸고자 한다. 세상이 아니라 자신을 바꾸는 것이 수행이며, 거두절미하고 본질로 직진하는 것이 직지(直指)다. 그리고 그 궁극에는 깨달음이 있다. 전도몽상에서 벗어나 우리 존재의 본질을 깨달을 때, 의식은 비로소 대자유와 지고한 행복에 도달하게 됨을 밝힌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임제록, 무의진인 되는 지름길

무의도인으로 살게 하는 임제록

양지 역주 | 임성순 서화
맑은소리맑은나라 펴냄 | 2만원



〈임제록〉의 원제는 〈진주임제혜조선사어록(鎭州臨濟慧照禪師語錄)〉이다. 당나라의 선승인임제의현(臨濟義玄: ?~867)의 가르침을 그가 죽은 후 제자인 삼성혜연이 편집한 것으로서, 현존하는 것은 의현이 죽은 후 254년이 지난 1120년(북송의 선화 2년)에 원각종연이 중각(重刻), 인본(印本)한 것이다. 내용은 상당 · 시중 · 감변 · 행록 · 탑기로 나누어지는데, 특히 감변과 행록에는 당시 선가들의 사상적 교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많다.

마조 · 백장 · 황벽의 어록과 나란히 4가 어록의 하나이며 대표적인 선종어록으로서, 〈임제록〉을 선어록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가 남방불교에서 북방불교로 전환되어 대승불교가 된 이후 선불교를 완벽히 대중화해 모든 사람들이 부처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임제선사는 승속을 아우르는 모든 이들이 부처나 조사라는 언어문자나 개념에 속박되지 말고 자신 스스로 진정견해를 체득해 무의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기원하고 있다.

임제혜조선사어록을 해설하며 이 책은 이제까지 많은 선지식들이 번역과 해설을 했으며 현재 시중에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이 책을 다시 번역하고

조사로 살아가는 법 설명
선가들의 사상적 교류도

해설한 것은 신앙과 종교를 구분하여 확실하게 알리기 위함이고, 한 사람이라도 견실히 수행해 부처나, 조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하고자 함이며, 부처나 조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마침내 출현해 불법을 계승하길 서원하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밝힌다.

임제조사는 사람이 부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무의도인, 무위진인이라고 표현하며 실제로 부처는 살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강조한다.

〈임제록〉은 상당, 시중, 감변, 행록으로 구분 편집됐는데 감변과 행록은 임제스님이 제도(濟度)하는 것과 서로의 안목을 점검하고 확신케 해 불퇴전의 무의도인으로 살게 하는 것으로서, 이는 자비심을 실천한다.

혜능을 조사로 만든 것이 〈육조단경〉이라면 〈임제록〉은 사람들이 조사로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설해 실천케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이 책의 내용을 반복해 논문이나 해설서를 만들어 설명을 더 하여도 구경에는 읽는 이들이 실천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사족(蛇足)만 더하게 될 것이 우려돼 간략히 정리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김주일 기자

▲저자 양지 스님은?

1992년 해인사 길상암 명진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동국대 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김해 신흥사 주지로 있다.

▲선서화가 남청 임성순은?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석사를 거쳐 불교대학원 선문화전공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대한민국 문화예술대전 국회의원상, 전국관설당 서예협회 초대작가 현재는 남청서예원 원장으로 있다.

예술 작품 통해 본 옛 사람들의 성정

테마로 읽는 우리 미술

신대현 지음 | 혜안 펴냄 | 1만 8천원



이 책은 우리의 대표적 전통미술 작품들을 석불 · 석탑 · 금속공예 · 불화 · 목조 · 건축 및 문화유적 등 여섯 가지 테마로 분류하고 그 중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성정(性情)이 잘 담겨있는 47편의 작품 및 유적을 뽑아 그들의 특징과 거기에 깃든 예술적 가치를 해설한 것이다. 30년 간 한국미술사를 연구한 저자 신대현은 이러한 고정관념서 벗어나 국보와 보물 등으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재들을 소개했다. 먼저 작품이 탄생한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 작품의 가치를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통해 옛이야기를 듣는 듯 쉽고 인상적 해설로 전달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소개한 불교문화재들은 곧 우리나라 미술의 커다란 축이었다는 점에서 비단 불교미술의 영역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나라 미술의 기본 감수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라고 말한다.

문화재란 역사가 빚어낸 민족의 작품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니는 미의식과 정서를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졌고, 여기에 오랜 역사가 더해져 지금 우리에게 전해온 것이 문화재다. 그러므로 작품의 평가기준을 어느 한 시대의 미술에

저자, 30년간 대표 문화재 소개
47편 문화유적 뽑아 자세히 해설

초점을 맞추지 말고 좀 더 통시대적이고 종합적으로 놓고 보아야 한다고 이 책서 저자는 이야기한다. 또한 문화재에 대한 평가 역시 서로 간의 우열을 따지는 방식에서 한 발 비켜서야 한다. 미술 감상이 콘테스트에 나온 작품들에게 점수 주고 등수 매기는 작업이 아닌 바에야, 역사의 산물인 문화재에 대해서 서로 어느 부분이 잘되고 못되었음을 따질 필요가 없다. 그보다는 옛사람들과 동감하려는 생각이 더 바람직하다는 시각에서 이 책의 첫 장은 시작된다.

책에 소개된 작품 중 몇 가지를 들면, 화엄사 효대의 사사자 삼층석탑에 깃든 연기조사와 그 어머니의 사연이 들려주는 애틋한 효심의 이미지,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불법 반출되었다가 천신만고 끝에 현해탄을 다시 건너왔지만, 한국전쟁 참화로 상처투성이가 된 채 외로이 경복궁 경내에 남아있는 법천사지 지광국사현묘탑, '한국 최고의 근사한 남자'로 유명 브랜드 슈트에 못지않은 세련된 디자인 갑옷을 입은 경주 감은사지 동탑 사리함의 사천왕상, 한국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땔감 잿더미로 화할 뻔했다가, 당시 청년장교인 고(故) 리영희 교수의 노력으로 살아남은 속초 신흥사 경판들, 잡작스럽게 다가온 죽음마저 지극한 애정으로 극복한 조선시대 부인의 사부곡(思婦曲) 전설이 깃든 울진 불영사 환생전기 현판, 사람들의 심성 깊이 자리한 '정토세계'를 향한 아름다운 상상을 조그마한 건축세계로 표현한 강화도 전등사 대웅보전 닫집과 극락조 등등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되 가슴 찡한 사연이 깃들고 우아한 품격과 다양한 미를 드러낸 미술작품들이 많다.

김주일 기자

문화재기능인목조각 제5772호 · 대한민국대한명인수미단 제483호

보리수불교예술원

Daum NAVER

네이버는 검색창에서 보리수불교예술원 검색 ⇨ 카페 앨범 검색 ⇨ 목록 검색하시고, 다음에서는 다음카페 검색하시면 사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상, 닫집, 수미단, 사천왕, 건축, 목탱화, 법상, 경탁, 경상, 현판, 주련, 복전함, 인등, 연, 단청, 개금



대표 오동렬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154-10 wangborisu@hanmail.net

전화 031)573-1269 / 010-5254-7596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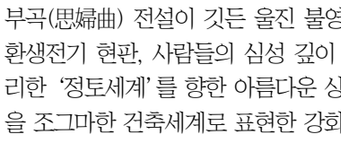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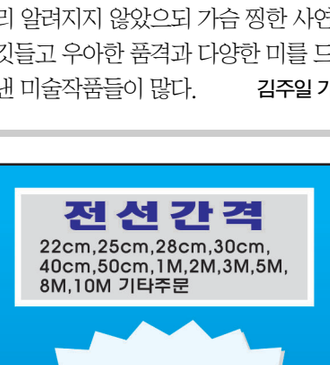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